



봄 마실 나온 보리이삭 원연한 봄날씨를 보인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보리밭에 어느새 보리이삭이 패어 봄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.

강희만기자

## 제주에만 설치 '지정 면세점' 특례 흔들

4월 국회 통과 예상...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  
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문화 작업  
도 "위기 속 특별시·도 연대로 지방분권도 가속"

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'중  
жат'을 만들어 낸 '지정 면세점'  
이 강원도에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  
되고 있다.

강원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 
와 지역소멸위기 대응 등을 '지정  
면세점' 설치 명목으로 내세우고  
있어 정부와 국회의 판단에 다른  
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 
있다.

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 
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

자치도는 특별법에 지정 면세점 설  
치 및 운영과 교육특구내 국제학교  
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특례  
조항을 담을 예정이다.

강원특별법은 오는 4월 국회에  
서 처리될 예정이다. 앞서 강원도  
는 350건의 특례를 발굴했으며, 강  
원특별법은 181개 조문으로 구성  
했다.

강원도는 지정 면세점을 설치해  
관광객을 유치하고 면세점 수익금  
은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미래산업

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.

강원특별법 통과시 강원도에 지  
정 면세점 설치와 국제학교 설립  
이 가능해 지게 된다. 강원도는 분  
교형태로 국제학교를 유치하거나  
일반 국제학교를 설립할 예정이  
다. 현재 국제학교는 제주자치도  
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이 가능  
하다.

아울러 지난해 12월 '전북특별자  
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'이 국  
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8일 특  
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라  
북도는 현재 특례를 발굴하면서 특  
특별법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  
다. 강원자치도와 마찬가지로 특별  
법에 지정 면세점 설치와 국제학교  
설립 등을 담을 예정이다.

제주도 내에 설치된 '지정 면세  
점'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  
는 내·외국인이 이용하고 있으며,  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  
와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 
있다. JDC는 지난해 면세사업  
으로 6584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  
록했다.

제주자치도 관계자는 "4월 국회  
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특  
별자치도 특별법은 현재 의원 입  
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  
특별법에서 좋은 특례만 발굴해서  
만들었고 전북에서는 강원특별법  
을 따라 만들고 있다"며 "다른 특  
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에는 위기가  
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시  
도가 연대해서 협력을 하면 지방  
분권에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  
다"고 말했다.

고대로그자 bigroad@ihalla.com

## 특별자치도에 시·군 설치 근거 마련되나 국회 조은희 의원,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

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관할 구역  
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근거를  
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 
안이 국회에 발의됐다. 시·군을 두  
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 
에 관련 법 정비를 위해 발의된 법  
안인데, 법 통과시 행정체제개편을  
추진 중인 제주에 미칠 영향에 관  
심이 모아진다.

국회의원 조은희 의원(서울 서초  
구갑)은 지난 2월 22일 지방자치법  
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  
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

조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  
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  
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·군을 두  
는 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11일 출  
범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법 상 특  
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 
내용이다.

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  
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 
관할 구역 안에, 군은 광역시나 도  
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, 자치구는  
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

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특별자  
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 
있지 않다.

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대  
해서도 도(道)와 유사하게 관할 구  
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했다.

다만, 개정안은 '법률이 정하는  
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 
수 있도록 한다'는 조문도 담았다.  
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  
법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조  
항으로 해석된다.

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  
지만,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경우  
제주에서 논의 중인 제주형 행정체  
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 
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. 제주  
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 
하는 근거 마련과 행정체제 변경  
등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  
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  
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 
중이지만 정부의 신중 의견으로 법  
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  
문이다.

국회·부미원기자

## 4년 만에 도심 전농로 왕벚꽃 축제 오는 24~26일 사흘간 거리 공연·체험 등 다채

제주시 도심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 
4년 만에 '축제의 꽃'을 피운다. 삼  
도1동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·주관  
하고 삼도1동주민센터와 각 자생단  
체가 후원하는 제16회 전농로 왕벚  
꽃 축제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 
3일 동안 전농로 벚꽃길 일대에서  
열린다.

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4년  
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돼 '사랑 벚  
꽃 가득한 전농로의 봄날'을 주제  
로 봄맞이에 나선 도민과 관광객들  
에게 3월의 추억을 선사하는 프  
로그램으로 꾸민다. 벚꽃길 거리 전  
역을 공연장으로 만들어 무대 공

연, 길거리 공연, 체험 프로그램 등  
을 준비했다.

첫날에는 길트기 행사와 개막식  
(오후 7시), 둘째 날에는 제주중앙  
초 학생들의 공연과 왕벚꽃 노래자  
랑 예선, 셋째 날에는 왕벚꽃 노래  
자랑 본선 등이 이어진다. 부대 행  
사로 프리마켓, 옛날 놀이, 먹거리  
장터 등을 마련했다.

제주시의 또 다른 벚꽃 명소인 애  
월읍 장전리 왕벚꽃 거리에서는 이  
달 25~26일 제5회 애월읍 왕벚꽃 축  
제가 예정됐다. 애월읍과 애월읍연  
합청년회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토·일요일 신문 쉽니다

갈색머리갈매기 제주서 관찰... 4면 / 국제 크루즈 3년 만 제주 입항... 5면

'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'

##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

서귀포시는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삶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

###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 성과

※ 노지문화: 서귀포의 자연과,  
이에 적용하여 살아온 서귀포 시민들의 삶  
그리고 가치관을 포함하는 상징적 의미

- 노지문화 자원발굴 및 문화 콘텐츠화
- 마을 문화불균형 완화를 위한 마을라운지 47개소 지정 / 권역별 마을노지문화를 특성화한 노지문화축제 개최
- 휴먼라이브러리 영상제작, 마을삼촌 그림이야기책 사업 등 마을문화자원 콘텐츠화 시도
- 지역별 유휴공간 재생기반 문화 인프라 문화 공유공간 조성: 생활문화플랫폼, 유토피아 갤러리 등 문화공유공간 7개소
- 문화 전문인력 양성 창의문화 캠퍼스 운영: 노지봄꽃·바당·감귤학기제 운영으로 창의 문화인력 양성
- 문화도시 사업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: 2022년 제1차 문화도시국제컨퍼런스 및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
- 시민 참여 확대 및 향유욕구 증가: 노지문화탐험대, 시민문화아카데미, 우리동네 호골락 문화학교, 반지릉노디스토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
-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 활성화: 서귀포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, 소원탁 및 문화(대)원탁 개최

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
문화도시서귀포